성서모임에 대하여

Rev. 2008년 1월

1. 성서모임의 목적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나누기위한 것이다. 성서를 토대로하여 우리들 자신의 삶을 반성해보고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위한 것이 목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친교이다. 신앙인은 공동체의 삶에 기반을 두고있으며, 공동체로서의 친교가 요구된다. 그래서 성서모임은 흔히 알고있는 구역별 모임의 성격, 즉 공동체로서의 친교를 또한 그 목적으로 한다.
2. 성서모임은 2주에 한번 갖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주 정도를 연기할 수 있지만, 3주를 연속으로 걸러서는 안된다. 또한 3주만에 모임을 가졌다면, 다음 모임은 바로 다음주에 하도록 배려한다. 한 회 모임에서 구약 창세기의 경우 **할당된 부분**, 신약의 경우 성서의 **한 장**을 공부한다.
3. 각 조별로 조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총무 등을 둘 수도 있다.
4. 성서모임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진행자 선정은 조별의 특성에 맞게 정한다.
   * 조장은 모임의 장소와 시간, 발표자 및 필요 사항을 반드시 조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한다.
5. 조별 준비물은 조별 출석표와 요약문 모음이며, 개인 준비물은 성서, 성가집, 성서모임 진행방식, 그리고 필기도구이다.
6. 반드시 아래에 제시된 성서모임 진행방식에 준하여 진행하며, 각 항목이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
7. **성서모임에서 지켜야할 일**.
   * 성서모임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발언을 평가하는 일을 삼가야한다. 성서나눔의 내용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할 뿐이다. 그 발언을 판단한다면, 다음 모임에서 구성원의 열린 마음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모임에서 있었던 말들은 반드시 침묵을 지켜줘야한다. 남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성서모임 진행방식 (진행자 주도)

* 모이기로한 정확한 시간이 되면 조장 또는 진행자나 총무가 조원의 출석표을 확인한다.

1. 성가 (2절 이상)

2. 시작기도

진행자의 주도로 "십자성호"를 긋고, 모인 사람 모두가 특정한 순서 없이 짧은 한두마디의 기도를 한다. 이어지는 기도의 간격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모든사람이 참여하는 함께하는 기도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하다.

예)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멘(공동)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함께 하소서. 아멘(공동)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멘(공동)　기타 사소한 기도들이 (거창한 기도들 보다) 좋다.

진행자는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으로 시작기도를 마무리한다.

3. 성서읽기

그날 공부할 내용의 성서를 돌아가면서 읽는다. 모두 읽을 기회를 가지려면, 한사람이 3-4절 정도만 읽는 것이 좋다. 성서의 마지막을 읽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입니다"로 마친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한다.

4. 성서에 대한 묵상 (1-2분)

5. 진행자의 성서내용 소개 (약 15분 정도)

진행자는 창세기의 경우 두권, 신약의 경우 세권의 성서해설서를 참고하여, **두쪽 이상**의 요약내용을 만든다. 그리고 이 요약문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소개한다.

6. 성서에 대한 공부 (질의응답)

이 항목의 목적은 성서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고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을 질의한다. 이에대해 진행자는 참고도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설명해주면 된다. 만약 참고도서에 없는 질문이면, "참고도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면 그만이다. 진행자가 대답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사람이 응답해줄 수도 있다. 간혹 진행자가 아니어도 성서지식이 많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반드시 답변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진행자를 제외한 특정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발언하는 것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서모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형식의 진행을 권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 성서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7. 성서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한 생활나눔 (느낌발표)

성서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각자 그날 성서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나눈다. 이 나눔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서는 공부하기 위해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침서이다.

오늘 성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와닿았던 성서의 단어나 문장을 말하고 자신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좋은 내용을 말하려고 노력하지말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느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시간은 결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말의 뜻은 이시간이 성서공부 항목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성서공부가 이성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구성원들간에 대화하는 시간이라면, 이시간은 감성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이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한다. 성서공부 시간에 발언을 많이 했다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발표한 내용에 부연해서 발언을 한 경우도, 자신의 느낌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부분이 성서공부의 핵심이고, 모두가 참여해야한다.

* 조원 중에 한두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않도록 할 것이며, 모든사람이 비슷한 양의 시간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8. 마침기도

시작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순서없이** 마침기도를 한다.

9. 진행방식에 대한 간단한 평가

흔히 이항목을 하지않거나 형식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된다. 간혹 성서모임 진행방식에 따르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늘 진행했던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는다.

10. 다음번 날짜와 장소 및 조에서 공동으로 논의할 사항

11. 성가 (2절 이상)